제12편
소사신앙촌시대 〈제3부〉
一. 밀실(密室)
二. 밀실의 역할
三. 밀실에서 삼신일체(三神一體) 일인출(一人出)된 조희성님
1) 아담이긴자인 구세주 후보자
2) 사망의 신인 나라는 주체의식과 생명을 건 투쟁

三. 밀실에서 삼신일체 일인출된 조희성님

2) 사망의 신인 나라는 주체의식과 생명을 건 투쟁

다) 뒤돌아보는 음란죄, 관심의 음란죄

밀실 뒷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이 옛날 공부를 가르쳤던 제자와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해와이긴자께서 "조사장! 조사장!" 하고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조희성님은 정신이 번쩍 들어 해와이긴자에게로 달려갔다. 그랬더니 "뒤돌아보는 음란죄를 졌다"라고 호통을 치시며 조희성님을 개 패 듯하신다. 사람이 어떻게 과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힌 일이었다. 사람의 생각까지도 통제를 당하는 기가 막힌 율법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해와이긴자는 조희성님의 작은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여다 보시면서 조희성님을 키우고 계셨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뒤돌아보는 음란죄요 죽을죄가 되는 것이다.

또 가족을 생각하는 것도 관심의 음란죄가 된다. 오직 하나님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은 다 죽을죄요 음란죄가 되는 것이다. 생각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수도생활이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활하는 밀실의 수도생활이었다.

라) 이유변명죄

하루는 밀실에서 수도하는 식구들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해와이긴자는 조희성님에게 공개적으로 전깃세를 내라고 20만 원 줬는데 떼어먹었다고 "도둑놈의 새끼야. 전깃세 내라고 준돈 20만 원 빨리 가져와, 이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시는 것이다. 그때 조희성님이 "저는 그런 돈 안 받았는데요"라고 한 마디만 하면 그 순간 '이유변명죄'로 떨어진다. 그래서 조희성님은 아무 말도 하실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도독놈이라고 하시면 도둑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사망의 신이요 마귀이므로 나를 철저히 죽이고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연단의 과정이었다.

마) 우쭐하는 음란죄

조희성님은 밀실에서 같이 수도하는 30여 명이 바라보는 가운데 철저히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를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나는 도둑놈이 아닌데'라고 마음으로라도 생각하면 죽을죄가 된다. 나라고 하는 사망의 신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희성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였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해와이긴자의 벼락같은 호통이 떨어졌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이 도둑놈의 새끼야!" 이것은 '잘 이겼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때 조희성님이 시험에 잘 이겼다고 우쭐하면서 나가면 '우쭐하는 음란죄'에 떨어진다. 따라서 조희성님은 돌아서서 나오시면서 정말로 도둑놈처럼 고개를 숙이고 나가야만 하나님의 법에 통과가 되는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밀실의 많은 식구들은 조희성님이 정말 도둑이라고 생각하여 차갑게 대하는 기가 막힌 고통도 감수하며 참고 나가야만 했다. 이것이 사망의 신이 되는 나를 죽이고 이기는 수도인 것이다.

바) 좋아하는 음란죄

조희성님은 1978년 밀실에 들어가 이긴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연단을 받고 계실 때, 1980년 4월경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는 수도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절망 속에 빠져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하시는 구세주 후보자 조희성님의 좌절이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숨막히는 시점에 구세주를 낳은 영적엄마 영모님은 당신이 낳은 아들 구세주 후보자인 조희성님과 숨이 막힐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서로 밀접하게 주고 받으시면서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여 인류구원의 대역사를 성공리에 이루는 기막힌 광경을 알아보자.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쳐 울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라는 찬송 가사가 있다. 이 뜻이 무엇을 말하는가? 밀실에서 연단받으시는 구세주 후보자 조희성님이 계시는 이 산과 기장신앙촌의 구세주의 영적엄마 박태선님이 계시는 저 산이 서로 밀접하게 주고 받으시면서 구세주 출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합심하는 모습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쳐 울리면서 두 분이 어떤 모습으로 합심해 나가시는지를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1980년 2월경 1차로 조희성님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판정이 나면서 해와이긴자로부터 전도하러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새로 마련해주신 양복과 구두를 신고 조희성님은 주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를 하니 만나는 사람마다 향취를 맡고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병자의 병도 낫는 것이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소래면에 있는 은광장로교회에서 유장로를 전도하여 그 교회가 몽땅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장로교 간판을 도끼로 쪼개버리고 전도관 간판을 달았다. 은광장로교회 주인 유 장로가 향취를 맡고 소변으로 피를 쏟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그 장로가 개종을 하게 된 것이다.

조희성님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신이 나서 밀실로 돌아오셨다. 밀실에 도착하니 항상 조희성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해와이긴자가 밀실 정문에 서서 호통을 치신다. "저 좋아하는 음란죄 진 저 놈의 새끼! 못 들어오게 문 걸어 잠궈!" 이 해와이긴자의 호통 소리를 듣고 조희성님은 기가 막혔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도하여 교회 하나를 몽땅 진리로 돌아오게 한 것이 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나 이것이 '좋아하는 음란죄'가 되어 죽을죄가 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조희성님은 그 말을 듣고 밀실 정문 밖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으로 어떻게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라니 이 사람은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나이다." 지금까지 무수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 통과해 왔지만 전도해서 하나님쪽으로 이끌어 온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좋아하는 음란죄가 되어 죽을죄가 된다면 정말 사람으로는 이 길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기에 통곡을 한 것이다.

결국 낙심한 조희성님은 죽을 결심을 하시게 된다.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살아 있을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죽을 결심을 하고 숙소로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목을 맬 끈을 찾았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그저 지나간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 과정은 몸서리를 칠 정도로 아슬아슬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조희성님이 자살을 한다면, 그래서 실패로 끝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공들여 계획한 것이 다 무너져 실패로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들인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로 끝이 난다면 사망의 신에게 포로가 된 모든 생명체는 말할 것 없고 하나님도 끝장인 것이다. 예정된 구세주 조희성님이 지금 좌절하여 목숨을 끊으려 하고 계신다. 온 천지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결국 하늘도 어찌할 수 없어 손을 놓고 하늘의 진노를 폭발하시려고 하시는가!

바로 이때 북한에서는 전투기 500여대가 남침하려고 공중에 비상하여 하늘을 돌며 공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 미국은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가? 또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유엔은? 결국 세계대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100%였다.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어찌할 길이 없다고 인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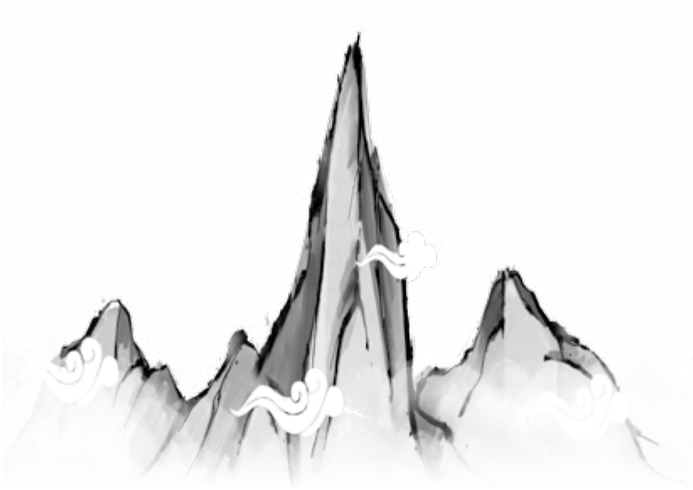
제12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3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49회)

모든 마귀 이기고 1차 이긴자 된 후
기성교회 장로 전도하여 교회를 기증받고
좋아하니까 그게 '좋아하는 음란죄' 라니…

격암유록 新 해설
제26회

20세기 후반 정도령이 동방 한국에 출현하여 신선세계를 이룩하느니라



生初之樂(一) 생초지락

三鳥頻鳴急來聲 삼조빈명급래성
渾迷精神惶忽覺 혼미정신황홀각
數數出聲朱雀之鳥 삭삭출성주작지조
無時鳴之開東 무시명지개동
夜去日來促春光 야거일래촉춘광
中入此時人人覺 중입차시인인각
仙源種桃何處地 선원종도하처지
多會仙中弓乙間 다회선중궁을간
寶血伸寃四海流 보혈신원사해류
心覺訪道皆生時 심각방도개생시
罪惡爭土相害門 죄악쟁토상해문
上帝之子斗牛星 상제지자두우성

닭이 세 번 자주 급하게 우는 소리에 혼미하던 정신이 황홀한 가운데 깨달음이 있으리라. 삼조는 곧 삼유(三酉)이니 닭이 세 번 드는 것은 경술년 조선이 망한 후의 신유년(1921), 계유년(1933), 을유년(1945 해방)을 말한다.

자주 자주 닭이 울어대니 붉은 닭이로다. 붉은 닭은 정유(丁酉)를 말한다.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소리에 먼동이 트게 되니라.

기나긴 밤(어두운 세상이 물러가고)이 물러가고 해(정도령)가 떠서 봄빛을 재촉하느니라. 지상선경을 재촉한다는 뜻이다.

중입(中入)은 이 때로다. 사람 사람마다 깨달아야 하느니라. 신선이 사는 도원선경의 복숭아 종자(구세주가 될 사람들)를 심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 신선이 모이는 가운데 궁을의 사이에 있느니라.

죄를 씻는 하나님(정도령)의 보혈이 사해로 흘러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죄악과 투쟁으로 서로를 해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두우성(정도령)은 도를 찾는 사람들 모두를 영생하게 하시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깨달아야 하리라.

西洋結寃離去後 서양결원리거후
登高望遠察世間 등고망원찰세간
二十世後今時當 이십세후금시당
東方出現結寃解 동방출현결원해
腥塵捽地世寃恨 성진졸지세원한
一點無濁無病 일점무탁무병
永無惡神世界 영무악신세계
亞宗佛 彌勒王 불아종불 미륵왕
人間解寃此今日 인간해원차금일

서양에서 원을 맺고 떠나간 후 하늘 높이 올라 천하를 두루 살피다가 20세기 후반 지금 정도령으로 동방 한국에 출현하여 맺힌 원을 풀게 되느니라.

더러운 죄악의 티끌을 털어 원한을 풀어주고 한 점도 탁한 것이 없으며 병도 없고 영원토록 악이 없는 신선의 세계를 이룩하느니라.

불아종불(亞宗佛)인 천하에 으뜸되는 부처님(정도령, 십승인)이 왕중의 왕 미륵왕으로서 우주 천지를 다스리시니 인간의 한을 풀어주는 때가 이 때로다.

憂愁思慮雪氷寒 우수사려설빙한
無愁春風積雪消 무수춘풍적설소
湧出心泉功德水 용출심천공덕수
一飮延壽石井崑 일음연수석정곤
毒氣除去不懼病 독기제거불구병
大慈大悲弓弓人 대자대비궁궁인
博愛萬物夜獸將 박애만물야수장
世上惡毒腐病人 세상악독부병인
世上獸爭種滅時 세상수쟁종멸시
殺人哀惜死地生 살인애석사지생
殺人無處處死 살인무처처사

세상사에 온갖 근심과 시름으로 눈과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구세주 하나님 정도령께서 따뜻한 봄바람이 쌓인 눈을 녹여주듯 풀어주시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난 샘물은 하나님의 공덕수요 한 번만 마셔도 수명이 연장되고 마시고 또 마시면 영생 불사하는 곤륜산의 석정(돌우물)이요 세상의 독기를 제거하고 어떤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라.

대자대비하신 십승 정도령은 만물을 두루 사랑하지만 밤의 짐승 같은 마귀들은 세상을 악독하게 하며 사람을 썩고 병들게 하느니라.

세상은 짐승과 같은 마귀가 다투는 곳이라 마귀 종자를 멸하실 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셔서 사지(死地)에서도 살길을 마련하셨으니 곳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십승 정도령을 따르는 사람은 죽지 않으리라.

桃花流水武陵村 도화류수무릉촌
仙會忠孝種桃地 선회충효종도지
海上萬里輸糧來 해상만리수량래
萬國忠信歌舞來 만국충신가무래
淨潔淨土別天地 정결정토별천지
金築寶城四千里 금축보성사천리
天長高臺空四肘 천장고대공사주
十二門開晝夜通 십이문개주야통
仙官仙女案內入 선관선녀안내입
金童玉女天君士 금동옥녀천군사
彈琴一聲淸雅曲 탄금일성청아곡

복숭아꽃이 피고 시냇물이 흐르는 무릉촌 즉 무릉도원의 한국 땅은 신선들이 모여 국충가효(國忠家孝)하는 복숭아 종자(신선이 될 사람)를 심는 곳이니라.

이곳을 향하여 바닷길로 수만리나 떨어진 곳에서 하늘의 양식을 실어가려고 찾아오며 만국의 충신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십승 정도령을 찾아오느니라.

십승 정도령이 계신 곳은 정결한 극락정토이며 세상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닌 신선이 사는 별천지이니라(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 금은보석으로 단장하여 지은 성은 사방 천리에 이른 것 같으리라.

금은보석으로 지은 축대(築臺)는 하늘 높이 솟아 있고 사방이 월세계(이상세계)와 같으니라. 열두 대문이 주야로 열려 있어 통하고 선관 선녀가 출입을 안내하며 금동(금 빛나는 소년)과 옥녀(옥과 같이 흰 선녀), 하늘의 임금과 선비가 타는 거문고 소리 청아하기 그지 없도다.*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